종교인답게 사는가? "아니요!"

시민들, 돌직구 날리다

11월 12일 KCRP '응답하라, 이웃종교! 토크쇼' 현장



11월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서 '응답하라, 이웃종교! 토크쇼'를 개최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패널로 나선 조계종 포교국장 성진 스님(불교), 정금교 목사(개신교), 이현숙 수녀(가톨릭), 〈연탄길〉 저자 이철환 작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직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번 따듯하다, 2번 윤리적이다, 3번 근엄하다, 4번 답답하다, 5번 특별한 인상이 없다. 자, 눌러주세요!"

이날 MC를 맡은 방송인 서경석 씨가 말을 마치자 관객들이 손에 들린 전자투표기 버튼을 눌렀다. 무대 위 자리 잡고 앉은 성직자들은 혹시나 '답답하다', '특별한 인상이 없다'란 답변이 많이 나올까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다행히 2번 따뜻하다가 31.8%(35표)로 가장 많네요. 성진 스님 이제 긴장 좀 푸시죠. 하하"

11월 12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서 '응답하라, 이웃종교! 토크쇼'를 개최했다. 종교인과 종교인, 종교인과 시민 간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조계종 포교국장 성진 스님(불교), 이현숙 수녀(가톨릭), 정금교 목사(개신교), 〈연탄길〉 저자 이철환 작가가 패널로 나서 약 110명 관객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주제는 소통 · 생명 · 통일 3가지로 각 주제 당 5개 질문이 주어졌다.

첫 질문의 긍정적 결과도 잠시, 두 번째 질문 앞에 종교인들은 다시 마른침을 꼴깍 삼켰다.

"국내 수많은 종교인들은 상호 소통하며 지내고 있을까요? 투표 시작합니다."

결과는 '아니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37.4%(40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반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2%(27표)에 그쳤다. '소통' 하자며 모인 자리에 '소통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니, 종교인들은 서로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에 대해 이철환 작가는 "우리나라 종교는 서로가 서로를 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전체라고 말할 수 없다. 약간의 다름과 거리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리라고 생각한다"며 "각 종교는 그 거리를 유지하며 시대 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 및 합의하고,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번째 질문은 소위 가장 셌다. '각 종교의 성직자들과 교인들은 종교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날 MC를 맡은 방송인 서경석 씨.


관객들이 토크쇼에 집중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전 축하공연을 펼친 장애청소년합창단 '에반젤리'.

스님 · 목사 · 수녀 패널로 나서
소통, 생명, 통일 주제 토크쇼
시민 110여명 참석해 즉석투표
"한국종교, 서로 소통 안 해"
냉철한 답변으로 분위기 '후끈'

를 묻는 내용이었다. "솔직하게 눌러도 된다"고 말했던 서경석 씨도 결과가 나오자 당황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지 않다'가 65.8%(73표)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것이다.

"정말 솔직하게 누르셨네요."

관객들 사이에선 웃음보가 터져 나왔고, 종교인들은 '아뿔싸'를 외쳤다. 정금교 목사는 손을 모아 얼굴을 가렸고, 성진 스님은 씁쓸한 미소와 함께 이마를 짚었다.

정 목사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의 표가 적게 나왔다. 사실 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 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종교인들이 수준 높은 가르침과 행동으로 모범을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요즘의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종교의 탓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소신 있게 말했다.

이어 성진 스님도 "'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사는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진실한 성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답변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음 주제는 '생명'이었다. 각 종교마다 근본엔 생명존중사상을 내포하기 때문인지 종교인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먼저 이현숙 수녀는 첫 번째 질문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에 대해 '인간의 탐욕'이라 답했다. 보기는 △분쟁과 전쟁 △과학기술문명 △환경파괴 △무한이윤만 추구하는 경제 △인간의 탐욕 5가지가 제시됐다. 이 수녀는 "모든 종교의 답변이 같을 것"이라며 "과학기술문명은 중립적인 것과 다름없다.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인간 의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것을 일찍 깨달아야한다. 자신이 얼마큼 가져야 내가 행복한지 생각해보라"고 물음을 던졌다.

성진 스님도 "분쟁과 전쟁, 과학기술문명, 환경파괴 등 모든 문제가 바로 인간의 탐욕서 비롯된다"고 동조했다.

이에 서경석 씨는 "4살 때부터 탐욕을 버리려 했는데 마흔이 넘어가도 버릴 수 없다. 오늘을 계기로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3번째 질문은 생명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를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북핵 · 사드 등 분단과 군사적 대치(28.9%) △낙태(26%) △비정규직 등 노동현장(24%) △연명치료(16.4%) △4대강(4.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비정규직'을 꼽은 정금교 목사는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는 개인 문제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 간 생존권이 관련된 문제"라며 "나를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세밀한 관심으로, 노동문제가 아닌 '생명존중의 문제'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대화가 시작됐다. 마지막 주제였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패널들과 관객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분단 상황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부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계 역할을 묻는 질문까지 다양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인 '남북분단으로 발생되는 문제해소를 위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한가?'란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57.4%(58명)로 과반수였다. 이밖에 잘 모르겠다(22.8%), 아니다(19.8%) 순으로 나타났다.

성진 스님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서 탈북민들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부둥켜안고 우는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을 보니 참 안타까웠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다음세대에까지 물려줘야한단 사실이 참 안타깝고 슬프다"고 말했다.

특히 네 번째 질문인 '우리 사회에 대북지원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 성진 스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견을 표출했다. 답변 중 '지원물품이 북한주민들을 위해 인도적 목적에만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지원해야한다'가 다소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네가 ~을 하면 내가 도와줄 게'란 식의 조건을 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 조건 자체가 양자 사이에 벽을 만들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한 민족을 돕는 일에 어찌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 이현숙 수녀도 "우리가 그들이 느끼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한 관객들은 종교인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들이 오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영미(가톨릭대 종교학 박사과정) 씨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다소 원론적인 대답들이 이어져서 아쉬웠다"며 "하지만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 것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오늘 자리는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원래 가장 필요하단 말은 가장 부족하단 뜻"이라며 "성직자가 일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부터 낮춰 대화를 위한 준비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축하공연엔 장애청소년 합창단 '에반젤리'와 가수 에릭남의 무대가 펼쳐졌다.

에릭남은 "종교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이해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매우 좋은 것 같다"며 "난 한국서 가수 준비를 하며 종교에 많이 의지했다. 여러분도 어떤 종교를 믿든 각각의 믿음을 지켜가며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